

“이 땅을 고치소서” 미국과 한국 위해 부르짖는다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 기도회

제69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한인들이 한 마음으로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했다. 지난 7일, 남가주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된 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개와 영적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에 걸쳐 유튜브 채널 및 미주복음방송, CTS TV 등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은 >회개와 코로나19 종식 >미국의 지도자들 >성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예배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사회로 순 무브먼트 박종술 목사와 찬양단의 찬양, 성시화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 미기홍 회장 민승기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다.



제 69회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서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가 환영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한기홍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들이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재앙을 그치게 하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

자”고 도전했다. 한 목사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도회 1부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의 인도로 정기정 목사(샘물 교회),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김은목 목사(평화 교회), 이후우 목사(좋은소식교회)가 회개 운동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

미국 지도자들과 각급 정부 기관장,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시장을 비롯해 남가주 지역 각 도시장들을 위해서 기도한 2부 기도회는 샘 신 목사(오직예수선교교회)의 인도로 김기동 목사(세리토스 총만교회), ABC 통합 교육국 유수연 교육위원, 사우스베이 목사 회장 브라이언 장 목사, 순 무브먼트 대표인 요운태 목사가 대표 기도했다.

3부 기도회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JAMA대표인 강순영 목사의 인도로 황의정 목사(돌로서 선교교회), 정우성 목사(남가주 광명교회), 김철민 장로(CMF 가정선교회)가 나서 뜨겁게 기도했다.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 4부 기도회는 총현선교회 민종기 목사의 인도로 박상목 목사(OC 교협 회장), 김영구 목사(세기모 서부 지회장), 김정환 선교사(Son Ministry 대표),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가 나서 한국 교회의 회복, 자유민주주의 수호, 부흥과 선교, 경제발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김동욱 기자

PCUSA 한인교회들, 이문희 총회장 후보 지지에 나서

NCKPC “첫 한인장로 당선 영광이 있도록 기도 부탁”



PCUSA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총회장 최병호 목사)가 이번 224차 총회 동사 총회장으로 입후보한 이문희 장로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NCKPC는 최근 회원교회들에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이문희 후보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교회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NCKPC는 이 후보에 관한 교단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하면서 “이 후보는 교단의 여러 공직에서 많은 사역으로 섬겼다”면서 “교단 설문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을 통해서도 이 후보의 관심과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당선을 위한 활동과 관련, NCKPC

는 “준비되는대로 구체적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면서 “6월 19일에 있을 총회장 선거에 이 후보가 한인교회 장로서는 처음으로 당선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기도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문희 장로는 1981년 퀸즈중앙교회에 장로 안수를 받았으며 뉴욕 시노회에서 노회장, 목회 위원회 행정위원장, 총무/서기, 청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노회에서 노회

정서기, 사법전문위원장을 맡았다.

동북대회에서는 대회 이사회, 한인목회 연구위원장, 한인노회구성 위원장을 역임했고, 총회에서는 헌법전문위원, 총대 3회, 신학교육 위원장, 중급치리회 위원장 등의 직책으로 섬겼다.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오렌지시노회 이사로 섬겼다.

사회적 직업은 신학과학자이자 임상심리사로 뉴욕시립/주립대학

교 발달신경과학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PCUSA 총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선거에서는 총회장 선거와 함께 정서기 선출을 위한 선거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올해 총회는 예산 및 그 외의 필수안건들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225차 총회로 넘기게 된다. 안건 토의를 위한 총회는 26일-27일 양일간 진행된다.

김대원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동양선교교회, 할리우드 차병원에 1만 8천 달러 상당 의료물품 전달



할리우드 차병원에 마스크 3천장, 의료용장갑 5천매, 방호복 9백벌을 전달하는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목사와 교회 성도들

“교회 존재 목적과 사명 붙들고 이웃과 함께 할 것!”

LA 지역 한인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교회는 지난 7일 할리우드 차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마스크 3천장, 의료용장갑 5천매, 방호복 9백벌 등 모두 1만8천달러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했다. 향후 방호복 9백벌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 물품을 전달 받은 병원장

로버트 알렌은 동양선교교회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지훈 목사는 “한인타운 내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마스크와 방호복이 턱없이 부족하고, 환자 가족들 역시 마스크가 없어 병원 방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마스크와 방호복 기부헌금을 시작했다”며 “성도들의 응원과 사랑을 담은 의료물품이 지역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지역사회를 향한 동양선교교회의 선교와 구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교회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인사회 가정들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생활용품과 음식박스, 위로금을 전달했고, 쌀 100포대를 기증받아 지역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했다.

김지훈 목사는 “50년의 역사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 온 동양선교교회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 이웃들의 힘겨운 짐을 함께 들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커뮤니티를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한인가정상담소-LA 자연사 박물관, 온라인 어린이 무료 체험 교실 연다



LA 자연사 박물관 @https://nhm.org/

가정의 달 맞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 행사

한인가정상담소가 LA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of Los Angeles)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 어린이 체험교실을 연다.

담소는 오는 18일(월) 오후 3시부터 30분간 6세부터 9세 아동들을 위한 <주니어 과학자> 프로그램을, 19일(화) 오후 3시부터 30분간 3세부터 5세 유아들을 위한 <크리터 클럽>을 ‘줌(Zoom)’을 통해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주니어 과학자>에서는 LA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가 아기 공룡과 엄마 공룡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어떻게 화석 공룡의 알을 탐구하는지 배운다.

<크리터 클럽>에서는 거북이(토르티스, Tortoises)들이 네 다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집을 짓고 아기 거북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번 어린이 프로그램은 한인가정상담소와 LA 자연사박물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아이들과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위해 마련 되었다. 박물관 대신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체험을 통해 다양한 자연의 신비를 배울 예정이다.

LA 자연사 박물관의 크리스티나 카스텔리(Christina Kastely) 퍼블릭 프로그램 매니저는 “코로나19로 박물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들이 LA 자연사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험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소장은 “코로나 19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그동안 육아로 힘들었을 부모님들께는 잠시나마 휴식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인사회에 좋은 체험학습을 선사해 줄 LA 자연사 박물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는 연령에 맞게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https://tinyurl.com/kfamnhm>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에 한하여 줌 링크를 발송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행사관련 궁금한 사항은 mlee@kfamla.org로 이메일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구세군 한인교회, LA 모든 가정 대상으로 식료품 제공 구세군 한인교회(이주철 사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LA 지역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료품 배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신분증(ID)만 지참하면 식료품을 받을 수 있다. 구세군 한인교회는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들을 중심으로 식료품을 나눠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사회 모든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해 식료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료품은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과 후버에 위치한 구세군 한인교회(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480-0714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남가주사랑의교회 100개 교회에 1천 달러씩 총 10만달러 지원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지역에 위치한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 자립'(미자립) 교회 돕기에 나섰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주 동안 정통 교단에 속한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장년 출석 50명 이하 규모 미자립 교회로부터 신청을 받아, 100개 교회를 선정해 1천 달러씩 지원할 예정이다.

10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 신청에는 260여 교회가 접수를 마쳤다. 당초 100개 교회 지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혜 교회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1주 가량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교회에는 교회 어카운트로 직접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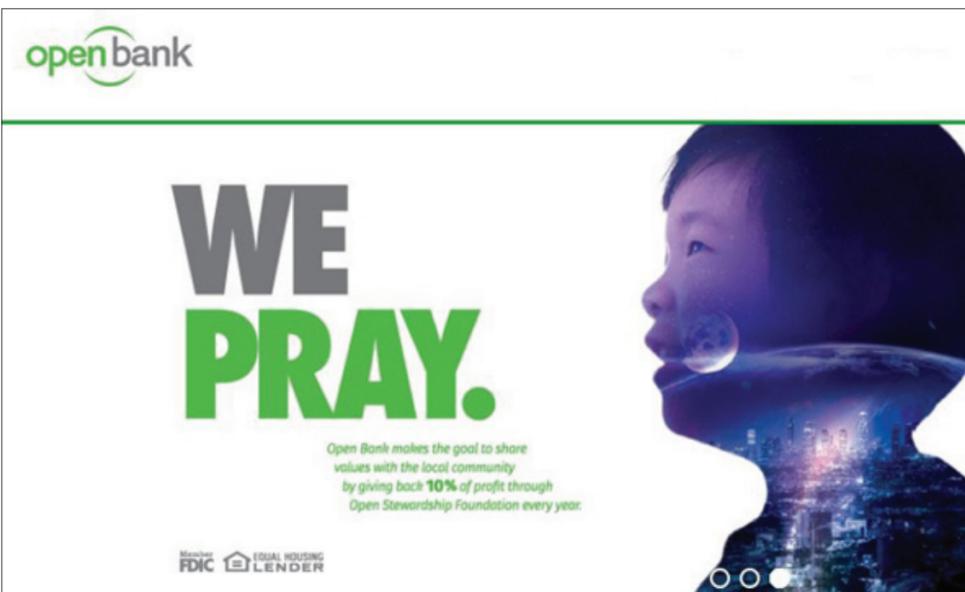
금되거나 교회 이름으로 체크가 발행될 예정이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종태 선임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마저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립교회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힘든 교회를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온 교회 성도들과 당회 장로들이 마음을 모아 결정하게 됐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애너하임 지역 병원과 의료진, 홀리스 웰터에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했으며, 생필품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280여 한인 식당에 각 3천달러씩 총 84만 6천달러 무상 지원



오픈뱅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나눔 프로젝트를 해 오고 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한인 요식업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요식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28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기부 및 나눔을 이어온 오픈뱅크(회장 민 김)와 오픈청지기재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이사장 도은석)은 지난달 한인 커뮤니티 요식업계를 위해 100만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그 결과 총 282개 업체에 지원금을 전달했

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한인 경제의 한축을 담당해 온 요식업계를 지원해서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한인사회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선정된 각 업체에게 3000달러씩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수(영신대 명예교수)
 이종원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교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영민목사(동일문 대학이다),
 유관지목사(종교문화대표), 강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회 책은 아예 번역체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목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드민 동족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지원했다.

재단에 따르면 총 430개가 넘는 업체들이 지원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친 결과 총 282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를 했으며 통보 확인을 받은 뒤 지원금을 발송했다.

당초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0만 달러 규모로 333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결과 서류미비 등 여러 결격 사유를 가진 신청 업체들이 예상 보다 많아 282개 업체만 선정하게 됐고, 총 지원금액은 84만6천달러로 최종 집계됐다. 재단측은 무조건 숫자를 맞추기 보다는 필요한 업체들에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했고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차액은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한 또다른 지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매출 50만 달러 이하, 최소 지난 2년동안 영업을 해 온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남가주는 Los Angeles County,

Orange County, 북가주의 Santa Clara County,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는 Dallas County와 Denton County에 위치한 업체들에게 지원했다.

오픈뱅크의 민 김 회장은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한때 재단 웹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이는 현 상황이 업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이번 프로그램이 조금의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의 도은석 이사장은 "한인사회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지원프로그램이어서 진행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 앞으로도 오픈청지기재단은 한인사회의 어려운 곳을 찾고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동욱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테이션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Now Enrolling

ACSI, ACSI, ACSI

(213) 487-5437 | www.e-nca.org | info@e-nca.org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6**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녀오다”

지난 주중에 2박 3일간 멕시코 멕시코칼리에 있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장로회 신학대학(임원석 선교사)을 다녀왔다. 5월 2일에 신학교의 창립 22주년 기념과 졸업식을 예정해 두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사 운영이 섰다운 되고 졸업식도 연기되면서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학교에는 아직 채 고향으로 가지 못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있었고 임 선교사 내외와 교수이신 한 선교사 내외가 학교에 머무르고 있었다. 필자도 어려운 때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이 폐일까 싶으면서도 졸업식도 못하고 끝낸 학기에 후시 마음에 서운함이 계속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마침 엘에이 울타리교회에 들어온 도네이션 음식과 물품을 제공받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선물들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국경을 넘었다. 한산했으나 국경은 환영하는 느낌이었고, 멕시코 거리도 한산했지만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신학교에 들어서니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이 환영해 주었다. 마침 식사 때마다 각자 선교사님과 학생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바퀴질을 하고 학생 청년들이 비를 맞으며 차를 밀기도 하며 갖은 고생 끝에 다다른 선교지는 별판에 소풍을 섞어 진흙으로 벽을 세운 허름한 건물 한 채였다.

어느 해엔 전기줄을 땅 밑으로 매설하기 위해 땅을 파달라는 임 선교사의 요청에 일주일 내내 십여 명의 장정들이 땅만 파던 해도 있었다. 그때는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온 육신이 아파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고통을 받아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돌아가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다음 해에 선교팀은 또 방문하였고 필자도 바쁜 목회 스케줄 중일지라도 멕시코 선교는 빠지지 않고 함께 한 것이 감사하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전기줄을 땅에 매설한 덕분에 신학교 내의 학교 경관은 전기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깨끗한 공간이 되었다. 선견지명이었다. 어느 해엔 임 선교사님이 신입학생들을 학교로 데리고 오기 위해 차로 삼일 거리에 있는 차아파스를 가시면서 우리 선교팀에게 학생들 사용할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 공사를 맡겼다. 우리 팀에 건축사 교우가 있었기에 맡긴 사역이었다. 우리 선교사가 돌아오실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여 금요일이 되어서 공사를 마쳤다. 금요일 저녁 무렵에 돌아온 임 선교사의 첫마디는 수고했다가 아니었다. “시멘트로 이미 발라 버린 벽면과 바닥 속에 매설된 파이프들의 사진들을 찍어 두었나요?”였다. 아니라고 답했을 때 “생각하며 일을 해야지 책임감 없이 일하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고 책망하던 때의 섭섭함이 생각났다. 그렇게 성품이 불같은 분이랄까 때마다 다음엔 오지 말자 했는데 매년 다시 이따가 오던 임 선교지를 임 선교사 내외는 지난 22년간 곳곳이 세워 나가며 마침내 멕시코 장로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이루어 냈다. 물론 그는 졸업식 때마다 설교하던 “오직 예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지난 20년 임 선교사님의 개척 때부터 이 사역지를 알게 되어 매년 교회 선교팀과 함께 꾸준히 방문하여 건축 선교도 하고 지역 교회 개척도 돕고 교도소 방문, 어린이 학교 사역, 구제 사역 등 매해마다 선교사님이 그때그때 필요로 하시는 선교 사역을 협력하고 봉사하면서 달려온 그 장소가 필자에게 최고의 사역지요 나를 영성 훈련장이기도 하였다.

우리 교회가 후원한 한 현지인 청년이 신학교 4년 과정을 통해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고향 남부 차아파스의 큰 교회 목회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된 것에 기쁨이 크다. 선교 개척 초기의 임원석 선교사를 회상했다. 갓 40이 된 젊은 사역자가 한국 장로교단에서 파송받아 그 당시엔 정말 생소한 멕시코로 선교를 와서 허허벌판 황량한 땅에서 첫 삼을 때었다. 그땐 필자도 전도사로서 갓 개척한 라스베가스의 교회에서 새로 임용한 교우들과 함께 처음 찾았던 곳이다. 처음 신학교를 찾아올 때 국경을 넘어 여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도로는 포장된 곳이 거의 없었다. 차가 진흙밭에 빠져 헛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3) 용서

용서로 만드는 행복!

제럴드 잼폴스키가 쓴 ‘눈물이 나도록 용서하라(Forgiveness)’는 책이 있습니다. 잼폴스키 박사는 스탠포드 출신의 의사입니다. 저자는 이혼을 경험하면서 용서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는 개인적 경험과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용서의 유익과 용서의 방법을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생에서 갈등은 필연입니다. 갈등이 깊으면 상처가 됩니다. 갈등의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마음이라는 마음의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최초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용서 받은 자도 큰 수혜자입니다. 용서는 피차의 심령 보약입니다.

스탠포드대학에 ‘용서 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설립자 프레드 러스킨은 용서는 삶의 필수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용서는 특별한 경험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통해 용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용서’에서 용서가 가진 의학적 치유력과 정서적, 육체적 유익함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러스킨은 이 책에서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용서가 건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용서의 힘과 용서의 유익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용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용서하며 스스로 상처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회복력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적시에 극복하는 용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몬 비젠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군 부상병동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한 간호장교가 그를 데리고 가서 어느 병사 앞에 세웁니다. 그는 죽어가는 나치 병사였습니다. 그는 비젠탈의 손을 잡고 “죽기 전에 제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용서받지 못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작전 수행 중 어느 작은 집에 유대인 200여 명을 강제로 몰아넣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뛰어 나오는 사람은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층 창문에서 한쪽 팔에 어린아이를 안은 남자를 보았어요. 그는 한 손으로 어린아이의 눈을 가리더니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아기 엄마로 보이는 여자도 뛰어내렸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죄를 용서 받고 싶습니다.”

그 나치 병사는 죽어가는 순간에 비젠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비젠탈이 반응을 못 한 채 침묵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젠탈은 그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 비젠탈은 그 병사를 용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병사는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온 비젠탈은 그 젊은 나치 병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괴로움에 차를 떨었답니다.

용서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 받은 자의 자유함과 만족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베푸는 자, 용서한 사람의 기쁨과 자유함도 용서 받은 자와 버금가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교육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엔라이트(Robert Enright)박사는 국제용서연구소(International Forgiveness Institute)를 설립해서 용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용서 잘하는 사람과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신경질적이며 노여움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피하려 하고, 복수를 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서할 때 심장혈관 및 신경계의 기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용서하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느끼는 고통도 적다고 합니다. 요컨대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당장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용서로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206., LA CA 90005

▪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2) 존 칼빈과 제네바 부흥운동

조용하고 병약했지만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씀과 성령께 붙들린 젊은 신학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한 도시를 성경이 다스리는 모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생 제네바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생애를 불태웠던 하나님의 사람 존 칼빈, 오늘날 이런 부흥과 개혁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오기를 기도하며 존 칼빈을 소개한다!

존 칼빈은 루터와 쾰빙글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완성한 뛰어난 종교개혁가이자 심오한 성경주석가, 조직신학자, 기독교 사상이었으며 불결하고 부도덕했던 제네바를 성경적 부흥운동을 통한 개혁으로 성경이 다스리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어 유럽의 영적 지도를 바꾼 인물이었다.

칼빈은 1509년 불란서의 노옹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무렵 영국에서는 헨리8세가 왕위를 계승했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부름을 받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나스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이었다.

대성당의 공증인과 교회 법정의 등록 사무관이었던 아버지는 칼빈이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가 카톨릭 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아들을 법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신부가 되기 위해 파리대학에서 공부하다가 계획을 바꾸어 유명한 오를레앙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다. 그곳에서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의 폭을 넓혔고, 헬라어와 라틴어를 공부해 헬라어와 라틴어 원서들을 많이 읽었다.

칼빈의 회심과 기독교 양요

신부와 법학자와 인문주의자의 꿈을 키워가던 칼빈은 그의 나이 24살에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한다.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깊은 인식, 바울 서신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들어감으로 깊은 평화를 맛보고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는 특히 루

터의 글을 많이 읽었고 그 영향으로 카톨릭과 결별하게 된다.

핍박을 피해 스위스 바젤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 유명한 걸작 '기독교 강요' 초판을 펴내게 된다. 기독교 강요는 그 후 20년 동안 8회의 개정판이 나왔는데 사도신경을 뼈대로 써 나간 기독교에 대한 탁월한 변증서이자 조직신학 책으로 이 책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종교개혁 원리가 명백히 표현되었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했다.

윌리엄 파렐과의 만남과 제네바 개혁과 부흥

칼빈은 기독교강요 출판으로 인해 유명인사가 되었지만 조용한 학자로 살기를 위해 조용한 마을인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제네바를 들렀다가 제네바에서 4년간 개신교 혁명을 이끌던 파렐을 만나 '체계 있는 성경 이론으로 종교개혁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제네바에 남아 종교개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게 된다. 그는 '조용히 학문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는데 파렐은 "당신이 만일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의 학문을 주께서 저주하실 것이오." 라고 불같이 경고했다.

후에 칼빈은 "파렐은 조언과 간곡한 경고가 아닌 무시무시한 저주로 나를 제네바에 붙들어 주었다. 이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나에게 얹어 잡으시려는 것 같았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기록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토사물과 포도주 냄새와 인분과 쓰레기로 악취가 가장 심한 도시였고, 독일과 프랑스와 이태리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인, 범죄자, 정치난민, 간첩, 몸 파는 여인들, 빈민들로 가득한 부도덕한 도시였다.

칼빈은 파렐의 종교개혁을 돕기 위해 제네바에 가게 되었고, 제네바에서 성경교사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모범도시를 만들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제네바를 바꾸어 나갔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도덕 기준을 믿고 나감으로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추방되어 3년간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낸다.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 칼빈은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배우고 기독교강요 제2판을 출간했고, 첫 성경 주석인 로마서 주석을 출간하기도 하면서 종교개혁신학을 집대성할 기회를 얻었다. 다시 제네바에 초청을 받고 돌아와 제네바를 장악해 제네바의 목사 겸 지도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성경적 개혁을 추진함으로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 모범도시로 만들었다. 제네바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께서 신자들과 공동체에 역사하시어 국가적 회개운동과 놀라운 도덕적 변화와 변혁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신학자로서의 칼빈

당시 최대의 걸작으로 불리운 기독교강요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전체를 주석해 책으로 출판했으며,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론을 중시한 칼빈의 5대 강령(TULIP)과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를 세웠다.

칼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를 강조했는데 성령 안에서의 절제된 도덕적 생활과 도덕적 의로움을 향한 강렬한 추구를 구원받은 결과로 강조했다.

그는 또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신자는 교회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당연히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 고 가르치며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칼빈 개혁 총정리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정치, 경제, 교육, 복지등)에 흘러 들어감으로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네바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예배개혁-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의 순



수성을 지키는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며, 예배의 순수성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 가르쳤다. 라틴어 예배에서 불어 예배로, 보는 예배에서 말씀선포 중심의 들리는 예배로 전환시켰고, 성가대에 빼앗겼던 어려운 찬송가를 일반 신자들이 부를 수 있는 시편을 내용으로 한 가사전달 중심의 쉬운 곡으로 만들어 찬송을 일반 신자에게 되돌려주었다.

가정과 경제개혁- 하나님 중심의 가정사역을 강조해 가정으로 하여금 출 취하지 말고 가정을 영적으로 돌보고, 열심히 일해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심일조를 내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저축한 돈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재투자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가르쳤다. 금융업을 장려하여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여 빌리는 사람이 이자의 부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고 스위스 은행을 오늘날 까지도 가장 신뢰 받는 은행으로 기반을 닦아주었다.

복지정책- 제네바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적, 정치적 핍박, 가난을 피해온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이들을 성경적 가르침대로 스스로 일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어 '일하게 하는 복지'를 정착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제네바와 스위스 발전에 기여하게 했다.

정치개혁-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권력은 언제든지 축출 되어야 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 '3권 분립의 체제'를 제안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을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부르기도 한다.

교육개혁과 제네바 아카데미-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회나 정부의 일을 위해 준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워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제네바 시에 자금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했다.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성경 뿐 아니라 의학, 과학, 정치, 사회학, 경제학까지 가르침으로 성경과 세상학문과의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 최고의 개혁신학을 가진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피해 우수한 개신교 젊은이들이 제네바로 몰려왔는데 이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몇 년씩 공부하고 돌아감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는 전 유럽 종교개혁의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은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유럽 전역에 수많은 대학들을 세우게 됨으로 칼빈의 사상과 개혁과 부흥운동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된다. 칼빈의 영향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의 청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화란의 칼빈주의,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이르기까지 부흥과 신학의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 당시 유럽과 신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존 칼빈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참고서적 중에서 특히 '한홍 목사의 종교개혁 히스토리'를 많이 참고하고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예장 합동 측 빛과진리교회 사건 유감...진상규명 지시

“품을 보듬고 더욱 사랑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빛과진리교회 입장문〉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맘 흘렸던 여러 절규에 저희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이적인 도움을 주었어야 했는데 아직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죄송할 뿐 지금의 논란은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아끼고, 헌신했던 분들의 토로여이 더욱 아픔입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안타깝고 유해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심경에 이르기까지 경험했을 허탈한 마음과 분노를 지워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더 따뜻반마다 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었기에 더 정중하고 사랑의 표현을 아꼈던 것을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

사를 접한 많은 성도들 또한 안타까운 마음에 방잠을 설치며 함께 슬



빛과진리교회 측이 5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 ©교회 홈페이지 캡처

총회임원회, 12일 사과문 발표 예정

예장합동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종준)가 최근 논란이 된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임원회는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준비하기로 했으며 이를 12일 기독교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평양노회(노회장 황석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평양노회는 18일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최근 빛과진리교회를 탈퇴했다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신앙훈련 명목으로 소위 ‘인분 먹기’를 비롯해 ‘허리띠로 매 맞기’ ‘트렁크나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기’ 등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성도들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제자훈련을 바

탕으로, 믿음의 약점을 극복하는 코스”라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분을 강제로 먹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극히 일부의 참여자들이 과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당 리더가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도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됐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오정현 목사 “이제 대형·소형 큰 의미 없어... 매력 있는 교회 돼야”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10일 ‘내가 사는 이유, 사명’(요한복음 20:21~23)이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에서 설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랑의교회는 이날 현장 예배를 복원했다.

오 정현 목사는 “사명자들이 드리는 예배, 사명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명이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삶의 목적이며, 개인의 사적 욕심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고귀한 부르심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다”고 했다.

이어 “사명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며 “사명이 없으면 길을 잃고 집중력이 떨어져 바람에 따라 느낌 따라 산다. 사명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도 사명 때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온 생애를 지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얻은 사명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지배해야 한다”며 “사명은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며 “주님은 부끄러운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다. 이 사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듯이 노예근성에서 복음의 전사가 되도록 만든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모든 부분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우선은 영적으로 우리의 노예근성을 정리해야 한다”며 “최고의 방법은 사명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제는 대형교회, 소형교회는 큰 의미가 없다.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매력 있는 교회는 사명으로 무장된 교회이다. 교회의 역할은 사명자를 키워서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사태’ 서울동남노회 분립안 부결

투표 결과 찬성 125명으로 3분의 2 못넘어... 반대는 109명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8회 정기노회가 12일 경기도 하남 미래를여는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노회 분립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노회원 수는 모두 234명(목사 176명 장로 58명)으로 이들 중 분립안 찬성이 125명, 반대가 109명이었다.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노회를 분립하려면 재석 인원의 3분의 2가 여기에 찬성해야 한다. 이날 노회에는 전체 회원 345명 중 239명이 참석했다. 3분의 2가 되려면 160명이 찬성해야 했다.

노회 분립안이 나온 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두고 노회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분립안 표결 전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서기 김성근 목사는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결성되고 거기서 서울동남노회를 분립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

분립안은 각 시찰들이 모여 공문화하고 임원회 결의를 거쳐 노회 청원안으로 상정됐다”며 “특히 8일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총회에서 노회가 분립하길 원한다. 법적 미비사항은 오히려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대희 목사는 “우리 노회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아옹다옹 하기보다 헤어져서 사는 것도 좋을 듯하다”며 “그러나 노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회수가 최소 60개가 넘어야 한다. 우리 노회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용혁 목사는 “6개월 동안 하나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 104회 총회 수습안이 헌법을 잠재한 결의이고 헌법을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세습과 관련한 찬반 논란으로 우리 노회는 하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황상호 목사는 “부부 간에도 이혼할 때 조정기간이 있다. 충분히 숙의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8회 정기노회가 하남 미래를여는교회에서 열렸다. ©노형구 기자

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분립을 한다면 조정기간이 필요하다”며 “노회원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분립결정을 해도 바로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다. 분립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회기에 보고하는 형태로 하자”고 했다.

이에 새벽교회 엄대웅 목사는 “우리노회는 3년 동안 식물 노회였다.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나? 총회에서 제안했고 임원회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교회가 아픔을 겪기 전에 분립을 통한 상황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전했다.

김치수 목사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분립하면 어찌란 말인가? 서로 입장이 같은 파들로 분립되면 중립적인 목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

인가”라고 했다.

이에 서기 김성근 목사는 “실무자로서 노회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게 죄송스럽다. 우리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식물 노회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도 우리에게 분립을 권유했다. 노회가 두 개로 분립해서 차라리 서로 건강해지자”고 했다.

그러나 윤형중 장로는 “현재 노회 임원들은 수습전권위, 총회 의견 등 대외적으로 전가하려 한다. 노회 분립에 대한 절차나 의견은 묵살하고 있다”며 “총회나 수습전권위원회 등에서 원한다고 분립을 밀어붙여야 한다. 만일 분립을 결의한다면 명성교회와 비대위의 김수원 목사에 의해 분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외부적인 모습으로 변명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노회 내부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총회의 결과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미국 5백여 목회자, 5월 31일 목회 현장 사역 재개 결정



캘리포니아주 목회자들은 교회 재개에 대해 "공중 보건을 위해 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cbn.com

미국 캘리포니아주 5백여 명의 목회자들이 현지시간 오는 5월 31일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8일 CBN 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잭 힉스 목사(갈보리 체펠 치노 힐스), 매트 브라운 목사(리버사이드 샌달 교회), 대니 캐를 목사(워터 오브 라이프 커뮤니티 교회) 등이 이러한 결정에 함께하기로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청원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그들의 계획을 캘리포니아 캐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목회자들에게 '종교의 자유'에 관해 자문하고 있는 밥 타이러(Bob Tyler) 변호사는 "교회들이 주 정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 정부는 마치 헌법 위에 있는 독재자처럼 앉아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상태를 가능한 최대한 길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일러 변호사는 "교회는 주 정부에게 그들의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만약 수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들은 정부의 결정에 개의치 않고 오는 5월 31일에 교회 예배당 문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택 대피령을 시행한 캘리포니아주는 8일부터 기존의 자택 대피령을 수정해 2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의료 가게와 꽃집, 서점, 스포츠용품점, 제조업, 창고 등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3단계로 분류되어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교회의 재개 결정에는 새크라멘토 존 멘데즈(John Mendez) 판사의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CBN이 전했다. 멘데즈 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공중 보건을 위해 교회 모임을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목회자들은 "도리어 공중 보건을 위해 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리버사이드 샌달 교회 브라운 목사는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은갓 감정적인 문제들을 비롯한 가정 관련 문제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 자살,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침례교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 회장 러셀 무어(Russell Moore) 박사는 "그동안 미국 내 대부분의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공중 보건 지도를 잘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교회 재개와 관련해서는 "지역 보건 권위자들과 협력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무어 박사는 정부에게 "반드시 교회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교회 모임이 다른 모임과 비교해 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일러 변호사에 따르면, 5월 31일에 재개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서 25~30% 인원만을 허락하며, 예약 시스템 운영 하에 여러 번 분산하여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김근혜 기자

조깅 중이던 美 흑인 청년, 백인 남성의 총 맞아 사망

지난 2월 23일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해안가의 한 마을에서 25세의 흑인 청년이 백인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한 교계 지도자들이 애도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느 때와 같이 조깅을 하던 아흐무드 아베리(Ahmad Arbery)는 도로 위에 멈춰 있던 흰색 트럭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가 총에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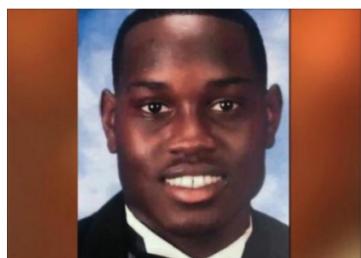
맥마이클 부자는 경찰의 증언에서 아베리를 인근에서 수 차례 발생했던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추격했으며, 아베리가 먼저 총기를 꺼내 들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그레고리 맥마이클(Gregory McMichael·64)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Travis McMichael·34)로 확인됐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되도록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사건의 수사를 맡은 글린 카운티 경찰과 검찰도 당시에는 맥마이클 부자를 체포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제보자가 지난 5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알버리가 숨지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건넸고, 이것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맥마이클 부자는 조깅하던 아베리를 차량으로 쫓아가 길을 막아선 뒤 권총을 꺼내 무장도 하지 않은 그에게 수 차례 총격을 가했다.

36초짜리 영상의 조회수는 400만 건을 넘었고, 총격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행진했다.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정의에 대한 어떤 기독교적 비전 아래에서도 군중이 도덕적으로 옳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은 없으며, 민간인에 의해 추적을 당하고 총격을 받아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흐무드 아베리의 모습. ©트위터

리를 높였다. 무어 위원장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과 싸워야 한다"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살인은 죽은 사람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그(녀)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임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디스패치 편집장인 데이비드 프렌치(David French) 작가는 "그들의 자경단 활동은 법을 준수하는 무장한 시민들의 영웅적인 행동보다 무장하지 않은 젊은 흑인 청년에게 길거리 정의를 행사하는 구시대적 행동과 더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맥마이클의 동기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백인 남성이 손에 총을 쥐고, 이름도 모르는 무장한 흑인 남성을 공격했을 때, 이는 과거 린치를 가한 무리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고 했다.

힙합 아티스트 레크래(Lecrae)는 트위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인간 안에는 영적, 도덕적, 지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독특한 것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이유"라고 했다.

또 "아흐무드 아베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다. 그의 가족들을 위해 울라. 진리가 드러나도록 싸우라"는 글을 남겼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LA백송교회
백암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부터 12세까지, 이민자 영혼을 위한, 선교를 위한 순증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저세대에겐)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동부 오후 10: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차성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종교동부 EM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정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본당)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본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모탈(델리안) (소매) 오전 11:0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신자의 흠뻑, 바르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종교동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산타모니카 만민부 지역 연합한인교회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 화)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종교동부 오전 11:00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LA동부, 라스베가스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토) 오전 6:30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승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 토) 오전 6:00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안 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개혁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주조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주일 오후 8:00
종교개혁 주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목요일)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목요일)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요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 주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
종교개혁 주간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요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요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191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6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년부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년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 주간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 주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사명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국가 기도의 날’ 참석한 트럼프 “코로나 극복 기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드려진 ‘국가 기도의 날’ 예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NBC 방송 캡처

방역 의료진 및 환자 위해 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국가 기도의 날’(5월 첫째 목요일)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카렌 여사와 각계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일선 의료노동자들과 수많은 환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 기도의 날, 미국은 매우 끔찍한 질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도전의 시기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물과 축복, 기도의 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며 “모든 미국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 힘과 위안, 용기, 희망과 치유, 회복을 기도하는 영적 연합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슬픔에 휩싸인 모든 가족을 위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 중인 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를 위해 기도한다. 치료법과 백신을 개발하는 과학자와 연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보호하시

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웃을 돌보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들은 가정에서 식료품을 제공하고 병원에 의료품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영적인 힘과 격려를 지원한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하고 존경받고 매우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기도와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의 강력한 정신과 영혼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도, 적도, 위험도 없다”며 “빈곤, 질병, 폭정과 악에 대한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다시 승리하고 바이러스를 정복 할 것이며 적을 물리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창조주에게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를 재건하고, 사랑하는 국가를 더 높은 곳으로 복원하도록 요청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불드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영원히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미 북음주의권, 중국언론 비난에 맞서 폼페이오 장관 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연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하자 미국 북음주의자들은 폼페이오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6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한 생물 의학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상당한 증거(significant evidence)’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6일 언론 브리핑에서도 그는 우한 연구소 유래설에 대해 ‘확실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가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대중을 호도하며 기독교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십계명의 아홉번째인 ‘네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을 ‘타락한 정치인, 종교적 관점에서도 비열한 사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 북음주의의 목회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과 이종성을 지지하며, 폼페이오 장관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비판에 대해 내셔널 히스패니 크리스천 리더십 연맹의 의장인 새뮤얼 로드리게스 목사는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포악하게 박해하는 정권이 성경을 가져와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려 들다니 얼마나 뻔뻔한가” 라고 답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편협성만큼이나 지독한 편견은 없다”며 “중국은 교회를 문 닫고, 목회자들을 사라지게 하고, 항상 종교와의 전쟁 상황을 만들고서는,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음주의 지도자이자 크리스천 리더협회 의의 의장인 조니 무어 목사는 “중국이 그들의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점점 절



미국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박해하고 있다 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무어 목사는 또 “중국공산당(CCP)은 폼페이오 장관이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베스트 크리천 펠로우십의 그렉 로리 목사는 “아마도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에게 화가 나 있었다”며 이는 “그가 종교의 자유를 장려하고 특히 중국 내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팀 클린턴 미국 크리스천 상담협회 회장은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신앙을 믿고 실천해 간다”면서 “중국 언론의 공격은 그를 1인치도 후퇴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지했다.

지난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중국을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안면 인식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소수의 종교 그룹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중국의 종교의 자유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함께 약 90만-180만 명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기스스탄 및 이슬람교도들을 신장 지역 내 1300개 이상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어 목사는 “(중국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뿐만 아니라 비슷한 행동-종교 탄압-을 하는 국가들을 뒤에서 돕고 사주한다는 점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진 기자

미국 목회자들의 반대로 공립학교서 요가 퇴출 시작 돼



오하이오주 내 일부 공립학교들은 수업에서 요가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요가는 신체 훈련 아닌 종교적 훈련” 지적... 오하이오주서 반대 목소리

미국 오하이오주 목회자들의 반대로 오하이오 공립학교 내 요가 수업이 퇴출될 예정이다.

11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1백여 명 이상의 목회자들은 “학생들에게 동양 종교의 한 형태인 요가 훈련을 강압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몇몇의 오하이오주 내 공립학교들은 수업에서 요가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목회자들은 오하이오주 교육위원회, 교육감,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가는 순수하게 신체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 효과적인 신체 훈련이 아니다”라며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하는데 동력을 제공하는 인간 내부를 향한 영적 수련”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가에서 산스크리트어 ‘아사나(asanas·자세)’, ‘프라나야마(Pranayama·호흡 조절)’는 영적 변혁을 위한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도 요가와 묵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수련’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한다.

목회자들은 “특히 오하이오주 내 클리어 포크(Clear Fork), 갈리언(Galion), 렉싱턴(Lexington), 루카스(Lucas), 맨스필드(Mansfield), 셸비(Shelby) 공립학교에서는 강제적인 요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개종시키려 한다”고도 성토했다. 또 “수업 시간 내 교실에서 진행되는 요가 훈련은 의무적인 출석, 교사의 권위, 또래집단의 압력 등에 의해 강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는 종교에서 승자와 패자를 뽑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렉싱턴 지역 마이크 지겔호퍼(Mike Ziegelhofer) 교육감은 “지역 학교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초월적인 명상이나 종교적 신념 훈련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루카스 지역 브래들리 허먼(Bradley Herman) 교육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한다”며 “학교 내에서 공식적인 요가 수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목회자들은 “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요가가 학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신앙의 전통은 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요가에 대해 “기독교와 어긋난다”고 반대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연구한 범위 내에서 요가와 태극권은 동양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극히 어긋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근혜 기자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목사 “영적 돌파의 해 될 것”

예수전도단(YWA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올해가 영적 돌파의 해가 될 것이라고 YWAM 회원들에게 전했다.

커닝햄 목사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2003년 싱가포르에 있을 때, 2020년은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도전을 받았고, 그 말씀이 마음 속에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그 해가 되었다.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고 있지만 이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사탄은 코로나라는 왕관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뇌물로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전략을 즐겨 사용했다. 이는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기에 사탄에게는 지혜롭다 말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행동들,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극복하게 하신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 해가 우리가 그 사랑을 주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아주 실질적인 방법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안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안식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근거해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표류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과 함께 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게 될 것이고 굶주려 할 것이다. 영적 각성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다른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집중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말씀으로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보고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며,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깰것게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의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단지 자연의 상태들이 변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자연에서 추출된 약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커닝햄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오게 되었을 때 운함을 다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주목해 보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 좋은 토양 가운데 심어진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 우리의 뿌리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올해는 돌파가 일어날 해이다. 두려움을 보지 말고 믿음을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을 향해 함께 가자”고 했다.

황지현 기자



로렌 커닝햄 목사 ©YWAM CMK 유튜브 영상 캡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영어)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로 세이. 주. 예수 복음의 열매 맺는 복음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네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오전 9:30 청년부: 오후 2:00
2부 예배: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에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3월16일 개강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부모 공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 6:2-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소견(所見, opinion)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견대로 살지 말고 말씀하십니다(신 12:8).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신 12:1)고 권면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는 원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리(原理)라는 말의 영어 “principle”의 어원은 “prince(왕자), princess(왕자비)”에서 나왔습니다. 즉 원리는 왕이 왕자와 왕자비에게 직접 준 것입니다. 원리 속에는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리는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리를 잘 지키면 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원리란 영화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을 영어로 “pre-view”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화의 예고편을 통해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를 예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복된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자기 소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적용은 무한합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사람을 향한 계명 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부

모 공경 속에 사람을 대하는 삶의 원리를 담아 두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법칙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의 원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 속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존중의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은 부모님을 아주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존중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존중의 지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존중에 있습니다. 존중의 원리는 부부 관계의 원리이며, 자녀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존중은 인물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제

자를 키우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입니다.

둘째, 보은(報恩)의 지혜입니다. 보은이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부모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드리십시오.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용서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은 완벽한 분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 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지혜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지혜입니다. 부모님의 헌신을 인정해 드리는 지혜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부모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는 부모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조건을 찾아냅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의미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품격 있게 살아갑니다. 부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잠 3:5-7).

요한과 한요의 차이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 하면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가신 아버지 생각이 더 사무칩니다. 불효한 자식일수록 부모님 돌아가신 후 효자 노릇을 더 하려고 한다는데,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던 시기, 필라델피아에 사는 동생들과 의논하여 전체 가족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함께 경치 좋은 곳도 구경다니고 부모님과 산보도 하며, 다같이 모여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도 무척 좋아하시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인 자리에서 손주들 이름을 불러 가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야곱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체력이 부치셨던지 제가 부족하여 차에 모셔다 드리는데, 저에게 거의 안기다시피 하여 차에 오르시며 속삭이듯 하셨던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며 눈물이 고이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저는 “약한 소리 하시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강마른 아버지의 몸을 안으며 한 때 저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이셨던 아버지도 마지막 걸어가시는 모습은 한 연약한 인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 입원하셔서 약 7개월의 투병생활 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평생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받으며, 편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씀이 “엄마 자동차 바꿔드려라”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사실 때부터 타셨던 산타페 자동차가 맘에 늘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모아 지금 타고 다니시는 토요다 Rav 4를 사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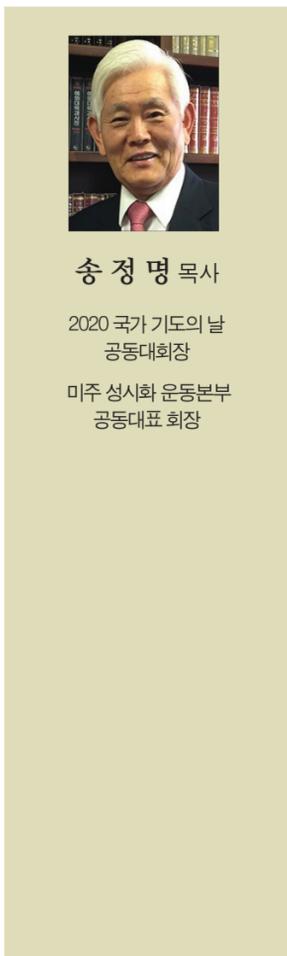
19:27) 예수님의 부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요한의 차이는 한요와 요한처럼 이름 뒤집힌 것만 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한요는 그 어머니를 노인 아파트에 모셨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요 19:27) 한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가끔 오셔도 주무시지도 않고, 해가 지면 운전이 힘들다며 바로 가십니다. 방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다고 입만 떼면 말씀하시며 지금도 Rav 4를 몰고 씩씩하게 다니십니다.

아직 어머니의 기도를 빚내어 묵회하고 있는 저는, 언제 요한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가 낡아 또 다른 자동차로 몇 번이고 갈아타셔도 좋으니,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국가 기도회날 연합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기도는 계속 됩니다!



송정명 목사

2020 국가 기도회 날
공동대회장
미주 성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 회장

몇주간 동안 기도하며 노심초사했던 2020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한인 연합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일을 위해 동역과 중보기도로 동참하신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 구석에서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 주셨던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은 금년으로 예순 아홉 번째가 되는 뿌리 있는 미국의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시작은 70년전인 6.25 동란이 발발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파병의 결단으로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제 33대 헤리트루먼 대통령 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국가 기도의 날 기도회는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은 차차하고라도 정부와 행정관청에서 요청하는 행정 명령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규정들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로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 할 때 그 열기가 살아나는 법인데 모이지 못하게 되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 선택한 것이 매체를 통한 On line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주 북음 방송국과 협의를 하고 방송 기도회를 준비 했는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매체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전통을 따라 5월 첫 주 목요일인 5월 7일로 정하고 장소는 은혜 한인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30여분간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기도회는 큰 기도 제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기도하고 각 파트 마다 네 분의 기도 강사를 세워 기도를 인도 하도록 했습니다. 2시간의 기도 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중계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관건 이었는데 철저 하게 잘 지켰습니다. 기도하며 준비 모임들을 갖고, 실행 리허설까지 준비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와 감동도 풍성한 좋은 연합기도회라 여깁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전원이 마스크를 쓴 채 진행했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준비실을 다섯 개나 사용하는 전대미문의 기도회였습니다.

가시적인 성도들은 만날 수 없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돕고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성도들의 열기가 느껴 지는 생동감이 넘치는 기도회였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의 숨결과 중보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한 여름의 폭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오래 오래 기억 될 좋은 기도회였습니다. 공연한 노심초사의 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연합기도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회에서 불길이 지펴진 우리의 기도는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풍성한 응답을 기대합니다. 아니 우리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기도회를 개최한 것이 응답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응

답입니다. 참석자는 물론 방송을 통해 함께 동참하신 성도들에게 임한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코로나도 물러가고 미국이 더욱 신앙적인 나라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 불길을 계속 이어 나가는 우리 사명이 잘 감당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미주 각 지역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이 비상한 방식으로 국가 기도의 날 연합 기도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텍사스, 신시내티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연합 기도회를 개최한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영적 도전이 더욱 힘차게 진행 되리라 믿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기도회를 준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신 실행 위원들과 귀한 도움의 손길을 퍼 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께서 갚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우리 기도는 계속 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모닝
 마그넷 &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시간 사고발생 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도착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주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염구리 통증(혈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총신 게이 폭로’ 염안섭 원장 “총신대가 이 문제 해결해 바로 서길 바란다”

“물증도 당사자 동의도 없다? 분명 동성애라는 자료 많아”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내의 동성애 문제를 비판해 온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을 총신대 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민·형사 고소했다.

염 원장은 올해 2월부터 ‘내 자식 동성애자 만드는 총신 게이들(이하 총신 게이)’ 시리즈를 유튜브 ‘레인보우리즌즈’에 게재해 왔다. 이 사건은 기독교 윤리학 이상원 교수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던 도중 성추행 발언을 했다며 학생들에게서 고발당한 사건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다.

‘총신 게이’는 총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모 전도사가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에게 4년간 동성 구애 행위를 해 온 사건으로 염 원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특히 염 원장은 해당 전도사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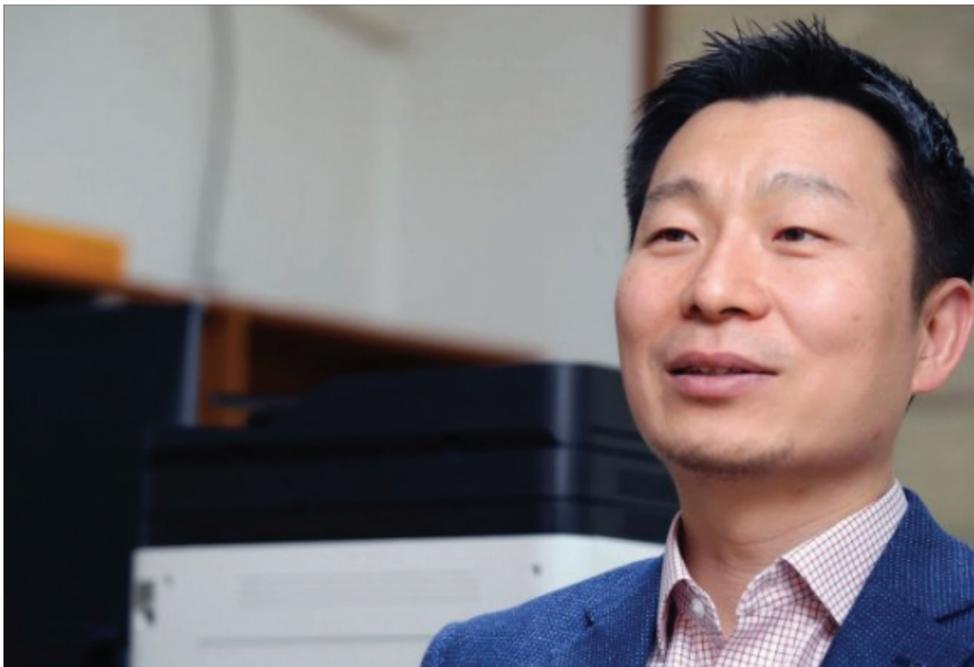
염 원장은 “학교에 동성애가 있다는 사실을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목사, 전도사를 키우는 게 총신대가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저를 소송하는 데 에너지와 현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상을 올리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만든다”며 “총신대가 저를 고소한 게 오히려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는데 교황이 그냥 넘어갔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신 게이’ 가해자로 지목한 전도사의 실명 거론에 대해선 “영상 공개 후 총회, 노회, 교회, 학교 할 것 없이 이를 다 숨기고 덮는 쪽으로 일제히 움직였다. 성직자의 성문제에 대해 굉장히 숨기려는 것을 보게 됐다”며 “만약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2-3개월 만에 묻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대해선 “지금까지 제가 겪은 ‘생명의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총신대 내에 동성애자가 없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선 “이미 성소수자 동아리 강종강총은 자기들 홈페이지, 인증사진, 학생증, 재학증명서까지 공개했다. 뉴스엔조이에서는 개별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총신대를 지적하거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복음주의·개혁주의의 요람으로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총신대가 저를 고소한 게 오히려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는데 교황이 그냥 넘어갔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총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런데 총신이 잘 서야 내 자식이 정확하고 은혜로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먼저 소위 ‘총신 게이 사건’ 을 폭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그간 총신대학교에서는 ‘총신대 내에 동성애자가 없다’고 계속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실 총신대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은 강종강 총이라는, 총신대 학생으로 구성된 성소수자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곳곳에서 포착됐다.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인 총신대가 바로서기를 원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사·전도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총신대 측이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정말 총신대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린 것이다.

총신대 내 동성애자의 존재를 알리니 총신대 측은 ‘우리 학교에는 동성애자가 없다’며 저를 소송하겠다고 했다. 지난 28일에 경찰서에 소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총신대 6개 기관 전부 저를 고발했으니 고발인이 한 2만 명이 넘는 셈이다.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목사, 전도사를 키우는 게 총신대가 해야 될 일인데 오

히려 저를 소송하는 데 에너지와 현금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 사건과 이상원 교수 사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

“현재 총신대에 재학 중인 모 전도사라는 분이 동성 제자를 3년 이상 동성 성추행, 그리고 동성 구애를 한 사실을 제보받았다. 평소엔 총신대 안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동성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 그래서 그 전도사의 동성 성추행 사건 제보, 그리고 같은 시기에 맞물려 이상원 교수님이 총신대 안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동성애의 기독교 윤리적인 폐해를 전하며 강의 중 의학적·보건적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여학생을 접촉해 추행을 했다거나 음담패설, 농담을 한 것은 전혀 없었는데 수업 내용만으로 성추행으로 고발되어 징계 처리 중이라고 들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총신대 학교가 동성애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 하나뿐 아니라 복음주의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95개 반박문을 성당 문에 붙이는 심정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다.”

-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법적 분쟁

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기도를 많이 했다. 영상을 올리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순종하는 것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감사한 것은 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총신대가 저를 고소한 게 오히려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붙였는데 교황이 그냥 넘어갔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루터를 종교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이슈가 폭발한 것이다.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교단인 합동총회의 신학교가 바로 서야 교회의 미래가 바로 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여차피 동성애 반대 운동 초기부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오를 주셨다. 순교의 영성도 사람이 일부러 만들 순 없는 것 같다.

저는 전혀 두려운 게 없다. 소장만 이만큼 쌓여 있고 진행 중인 소송이 12개 되는 것 같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저에게는 아직 12년의 소송이 있나이다’ 하는 심정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감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소송은 지금까지

제가 겪은 위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이겠다’ 이런 게 주로 제가 당한 협박이라 소송은 그냥 하면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이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하거나, 메일, 문자를 보내오진 않는다. 대부분 혼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신다. 저한테 오는 연락은 주로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다. 그래도 그런 항의성·협박성 메시지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까지는 채팅 등의 정황이 있을 뿐, 전도사가 동성애자라는 확실한 물증은 없는 것 아닌가.

“피해 학생의 조반 진술과 전도사와의 대화 내용이 다 녹음돼 있다. 유튜브 방송상 12분을 넘기지 않으려 애를 쓴다. 일부만 밝혔을 뿐 밑에 깔린 자료가 어마어마하다. 피해 학생이 당한 내용을 중간에서 제보한 강도사님을 통해 학생과 충분히 인터뷰했다. 카톡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종합해 보면 분명히 동성애가 맞다.”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는 오히려 원장님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습니까(피해 학생의 부모는 염 원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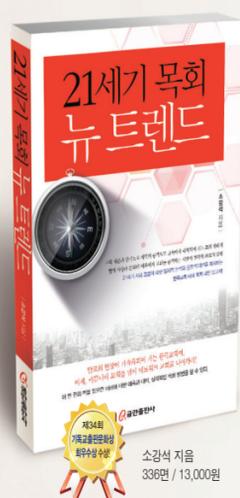
“피해 학생은 영상이 올라갈 것을 이미 동의했었다. 본인이 동성애 피해 받은 것을 인정했다. 다만 전도사의 실명을 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사건을 제보한) 강도사를 통해 학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학생이 신원 보호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학생의 신원 보호라는 말 속에는 본인과 가해자 둘 다 가 들어 있었다. 그것 때문에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저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미 영상을 올린 이상 내릴 수는 없다. 전도사 측에서 소송하겠다는 연락이 온 상태였기에, 영상을 내리면 소송이 두려워 진실을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게 된 것이다.”

송경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대학교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등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야 할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 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회 협회상, 천상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 보훈포상, 자원봉사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학교, 정로회신학대학, 연세대학교연한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도부 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해외목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서기, 호남신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 눈살임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학교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복 있는 사람

시편 1: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시편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4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다 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

1.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시편 1편은 총 150편의 시편의 서론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육체의 본능과 욕구를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그 악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을 같이 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목적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사는 목적과 방법이 죄인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만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속하여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의 소속이 오만한 자에게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복 있는 자는 결코 오만한 자의 소속에 들어가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약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원 얻은 사람 중에도 마귀가 차원 높은 감언이설로 유혹할 때

동의하거나, 세상조건에 현실적인 자기 입장에 꼭 필요한 것을 미끼로 제시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에 전도의 문을 막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2. 복 있는 사람이 행통한 이유

2-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살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영적인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 사막과 같은 형편을 오아시스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가난과 질병에서 밤낮 죽을 지경에 있다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연단 받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라는 목적으로 우리 삶에 질병, 환난,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평생이 현실적 질병과 가난과 실패로 얼룩져있다면 이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며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회개한 경험도 성령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겨 심기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진 기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대접도 달라집니다. 나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교역자들에게 진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져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 가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과실도 맺고 잎사귀도 푸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메마른 땅이 많습니니다. 그런 땅에서 시냇가는 참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심기었다는 것은 나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나무는 계절을 따라 잎사귀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엄청난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알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사업이든 장사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그가 이 땅에서 대신 행하기에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악인의 결국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선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악인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며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하면 쭈정이라는 말입니다. 쭈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알맹이는 빠져 나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쭈정이는 알곡에 비해 무게도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알곡과 쭈정이를 같은 가치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악인은 그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 불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우편과 좌편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듯이 알곡과 쭈정이라도 섞이는 것 없이 완전히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쭈정이로 살아가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장소인 천국을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 두려운 마음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제이주의로 살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그 기대대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섬기다가 성령에 이끌리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무가치한 일들을 위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남을 속이고 해치며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을 자초하는 것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이민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민낯을 드러내는 일**

올리버 트위스트, 19세기 영국의 민낯



생각 빼기의 기술
이우경
메이트북스 | 296쪽

산업 혁명 당시의 시대상이 그대로 담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차가운 도시 밀바닥에서 피어오른 선한 용기와 삶의 희망

찰스 디킨스 특유의 생생한 인물 묘사와 희극적 요소를 통해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고아 소년의 인생 역정을 그리고 있다.

갈등의 잡티 없는 삶? 화장발일 뿐 매일 치열하게 노력하고 절망해야 삶은 만만하지 않다... 민낯이기에

삶은 민낯이다. 자타공인 행복한 가정이라도, 거실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안방을 들여다보면 눈물도 있다. 갈등의 잡티 하나 없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니다. 화장발이다. 2016년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특수부대 대위와 여의사의 사랑이야기.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그들이지만, 드라마 속에는 알콩달콩 사랑으로 가득했다.

드라마 밖으로 나온 송중기와 송혜교.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 이혼으로 막을 내렸다. 삶은 조명발 가득한 드라마가 아니다. 좋은 모습을 꾸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행복을 이어가려면 매일 치열하게 사랑을 노력하고, 사랑에 절망해야 한다. 그런 치열함의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삶은 만만하지 않다. 언제나 민낯이다.

올리버 트위스트, 19세기 영국 민낯 고아 주인공, 끊임없이 악당 괴롭힘 우여곡절 끝 양자로 들어가는 결말

1838년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는 화장기 없는 민낯의 영국이 드러난 소설이다.

영국 작은 마을 구빈원에서 태어난 올리버 트위스트. 그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 입 맞춘 후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의 첫 입맞춤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었다. 아기는 그렇게 고아가 된다.

고아가 된 올리버 트위스트는 구빈원에서 자라게 된다. 한 번은 다 먹은 귀리 죽 그릇을 들고 '원장님,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말할 후, 빈 국자로 머리를 얻어맞는다. 배고프다고 말할 죄 때문에 독방에 갇힌다.

이후 장의사 '쇼베리' 씨의 도제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학대와 모욕을 받으며 지내야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런던으로 도망친 올리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소매치기 소굴 뿐이다.

'잭 도킨스'라는 소년이 굶주린 채 계단에 웅크리고 있는 올리버를 '친절한 노신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데려가지만, 그곳은 친절한 노신사 대신 '악당 페이지'가 있는 소매치기 소굴이었다.

노신사 브라운로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지만, 계속해서 올리버를 찾는 페이지와 일당

들에게 다시 붙들려 가게 된다. 소매치기를 거절하는 올리버와 어떻게든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만들려는 페이지. 페이지는 올리버를 도둑 '사익스'에게 넘겨 도둑질에 가담하게 만든다.

올리버는 총을 든 사익스의 강요로 늦은 밤 몰래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지만, 집을 지키는 하인들의 총에 맞고 정신을 잃는다. 그곳에서 친절한 메일리 부인과 로즈 아가씨를 만나 다시 돌봄을 받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노신사 브라운로의 양자로 입양되며 소설은 끝난다.

우정 대신 배신, 사랑 대신 집착이 도둑들의 삶 있는 그대로 묘사해 민낯은 늘 불편하나, 그것이 현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둑을 극장 스크린 안에서 만난다. 스크린 속 도둑은 범죄자라기보다 영웅처럼 보인다. 좋은 양복에, 멋진 차를 타고 다닌다. 남의 것을 훔쳐야만 하루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절박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멋진 우정과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된다. 이는 화장발에 조명발에 편입까지 가해진 모습이다.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에 등장하는 페이지의 소굴은 화장발 없는 민낯의 모습이다. 결코 미화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소매치기를 실패하고 빈손으로 오면, 맹렬한 잔소리와 함께 저녁을 굶는다.

그마저도 손찌검을 당하지 않으면 운이 좋은 날이다. 아이들은 페이지에게 견어차여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일도 많았다. 민낯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 속에는 우정 대신 배신이 있고, 사랑 대신 집착이 있다. 도둑 사익스와 함께 사는 매춘부 낸시는 결국 사익스에 손에 맞아 죽는다.

저자는 이들의 삶을 미화할 생각이 없다고 서문에서 처음부터 밝힌다. "사익스는 도둑이고, 페이지는 장물아비이며, 소년들은 소매치기 에다가 주인공 소녀는 매춘부이다."

"나는 도둑들에 관한 글을 수십 편 읽었다. 그들은 대체로 상냥하며 아주 유혹적인 인물이다. ... 글에서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접한 적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범죄 공모자들의 고리를 실제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 즉 그들의 뒤튼린 모습과 비참함과 불결하고 궁핍한 생활상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끔찍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시도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시도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저자 찰스 디킨스는 민낯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도 꾸미지도 않았다. 영국 그대로를 고발했다. 민낯은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 더 어렵고 각박해질 것 어려워진 삶 정부에서 지원하겠지만 각박해진 삶 지원해 주는 기관 없어

성경은 민낯을 외면하지 않는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라고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각박해질 것이다. 어려워진 삶은 그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각박해진 삶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없다. 사랑을 지원해주는 기관은 없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코로나19 사망자 240명 넘어서 백신? 사랑이 없어 죽는 사람들

교회가 소망, 성도가 희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40명을 넘었다.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백신이 없어 죽는 사람보다 사랑이 없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

2018년 무연고 사망자가 2,447명이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1,300명이 넘는다. 무연고 사망.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야 했다.

무연고 사망은 어떤 이유라도 결국 고독사다. 세상에 처음 태어난 그날, 가족들의 환영 받으며 왔지만, 세상 떠나 가는 날, 숨넘어가는데 그 순간에도 나를 봐주는 사람 없이 떠나야 했다. 외로움이 독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다. 성도가 희망이다. 외로움이라는 질병에는 사랑이 치료제이고 성도가 백신이기 때문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성도가 돈이 없지 사랑이 없나?" 외로움이 독이 되어 사망자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민낯. 교회가 소망이다. 성도가 희망이다.

박명수 목사

사랑의침례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고아가 된 주인공이 구빈원에서 "한 그릇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영화 <올리버 트위스트> 중 한 장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매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숫자를 사랑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와 연방 자금의
숫자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더해지는 숫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년 6,7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이
학교, 보건소,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한다면,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